

## 丁玲 문학과 신경망(NMT) 번역

— 여성적 서사의 기계적 수용 가능성 —

강 효 숙\*

###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여성주의 표현의 번역적 도전 |
| II. 여성주의적 관점의 전이  | 1. 신체성과 욕망           |
| 1. 기계번역의 감정 수용 전략 | 2. 억압과 해방            |
| 2. 번역 평가의 구체적 방법론 | IV. 나오는 말            |

### I. 들어가는 말

중국 현대문학에서 丁玲(1904~1986)은 여성의 내면과 사회적 억압에 대해 정면으로 바라본 대표적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소피 여사의 일기(莎菲女士的日記)>, <아마오아가씨(阿毛姑娘)>, <칭원리의 작은 집(慶雲里中的一間小房里)> 등의 초기 작품들은 여성의 성적 욕망, 침묵, 저항을 중심으로 한 감각적이면서도 정치적인 글쓰기로 주목을 받아왔다. 丁玲의 초기 문학은 단순한 내면 고백의 차원을 넘어, 가부장제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과 여성의 주체성 회복이라는 서사적인 전략을 통해 당시 중국 사회에 일종의 균열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고도로 감정적이고 문화적으로 맥락화된 텍스트를 신경망 번역(Neural Network Machine Translation, NMT)<sup>1)</sup> 기술이 어떻게 처리하는

\* 영남이공대학교 외래교수

지는, 문학 번역, 특히 여성주의 문학의 디지털 수용 방식을 논의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탐구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ChatGPT, Claude, DeepL 등 신경망 기반 AI 번역기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인간 번역자의 도움 없이 생성된 문학 번역물이 직접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기계번역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번역학이나 교육학 분야에 집중되어 왔으며, 최근 발표된 논문들 역시 이와 같은 흐름을 따르고 있다. 남철진(2018)은 〈中韓(韓中)번역을 통해 본 구글번역(GNMT)의 문제〉에서, 단순 문장의 경우 기계번역이 향후 주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고난도 원문이나 맥락 이해가 필요한 텍스트에서는 여전히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sup>2)</sup> 같은 해 권도경 외 3인(2018)은 9개월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 당시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NMT)이 문맥 파악과 의미 판단에서 인간 번역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3)</sup> 서미령(2020)은 〈한·중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 고찰 — 번역가와 AI 번역기의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구글과 파파고 번역기의 결과를 분석하며 문화적 특수성 처리 능력에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AI를 초별 번역이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sup>4)</sup> 이후 발표된 박정희 외 1인(2024)은 〈챗GPT에 기반한 중국문학작품 번역 방법론 탐구〉에서, ChatGPT 기반 번역 모델이 기존 기계 번역기보다 문학 텍스트에 있어 더 높은 성능을 보이며, 인간 번역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우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

- 1) 신경망 번역(Neural Network Machine Translation, NMT)기술은 심화 학습 능력을 탑재한 인공지능이 적용된 기술로 현재 NMT가 기계번역과 관련하여 최신 기술적 트렌트를 주도하고 있다. 장애리, 〈국내 기계 통번역의 발전 현황 분석: 한·중 언어 쌍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18권 2호, 2017, 2쪽.
- 2) 남철진, 〈中韓(韓中)번역을 통해 본 구글번역(GNMT)의 문제〉, 《중국과 중국학》 제34집, 2018, 21쪽.
- 3) 권도경 외 3인, 〈2018년 인공지능기계번역의 중한 번역 현황 - 구글 번역과 네이버 파파고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98권, 2019, 32쪽.
- 4) 최미령, 〈한·중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 고찰 - 번역가와 AI 번역기의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125호, 2020, 295쪽.

음을 시사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연구들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2010년대 후반까지의 연구들은 기계번역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 역할을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인간 번역가와 AI 간의 협력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다 유연한 관점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AI 시스템의 빠른 기술적 발전과 함께 번역의 문화적·정치적 함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여성의 욕망, 침묵, 저항 등과 같이 고유한 감정적 맥락과 상징성을 포함한 텍스트는 여전히 기계번역의 가능성과 한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르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丁玲의 대표 여성주의 문학 작품인 《阿毛姑娘》와 《慶雲里中的一間小房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ChatGPT, Claude, DeepL 등 주요 AI 번역기들이 동일 텍스트를 번역한 결과를 수집하고, 정량적 메트릭(COMET)과 정성적 평가 기준을 병행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특히나 여성의 신체성, 감정, 침묵, 저항과 같이 번역적 난이도가 높은 문장들을 중심으로 비유적 표현, 감정의 강도, 문화적 맥락, 여성 주체성 표현 등의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AI 번역이 단순한 언어적 번역을 넘어 감수성이 결합된 여성주의 문학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학 번역에서 인간 번역자의 역할과 AI 번역의 잠재력을 함께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II. 여성주의적 관점의 전이

### 1. 기계번역의 감정 수용 전략

5·4운동 이후 1920년대 중국은 사회 전반으로 변화의 새바람이 불고

5) 박정희 외1인, <챗GPT에 기반한 중국문학작품 번역 방법론 탐구>, 《중국문학》, 119권, 2024, 194쪽.

있었으나 여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에 억압되고 제한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丁玲은 그녀의 초기 작품을 통해 당시 중국 문단에서 여성의 욕망과 내밀한 세계를 대담하게 표현하는 선구적인 작가로 자리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당시 가부장적인 문학 전통 내에서 주체적이며 대담한 목소리로 오랜 침묵을 깨뜨렸다. 초기 작품들은 문학적 실험을 넘어서 일종의 여성의 감정과 경험을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丁玲의 초기 문학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여성주의적 특징은 여성 인물의 내면적 심리와 성적인 욕망을 거침없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점이다. 엘렌 식수(Hélène Cixous)(2004)의 《메두사의 웃음(Le Rire de la Méduse)》의 여성적 글쓰기(écriture féminine)<sup>6)</sup> 개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시도는 당시의 중국 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샤오얼의 손은 비록 거칠었지만 그 거친 손이 그녀의 가슴에 닿기라도 하면 마치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이 달아올랐다.<sup>7)</sup>

가끔은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느껴지고 너무 행복해서 참지 못하고 샤오얼의 얼굴을 부여잡고 키스를 퍼부를 때가 있다. 때로는 그의 몸에까지 키스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샤오얼의 몸은 이상하리만큼 뜨겁게 느껴졌고, 스스로도 몸이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sup>8)</sup>

6) 엘렌 식수(Hélène Cixous)가 『메두사의 웃음(Le Rire de la Méduse)』에서 내세운 ‘여성적 글쓰기’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언어 체계에 정면으로 맞서는 개념이다. 그녀는 여성들이 지금까지 남성의 언어로 말하고 써왔다고 지적하면서, 여성만의 고유한 글쓰기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의 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논리적이고 직선적인 남성의 글쓰기와 달리, 여성의 글쓰기는 몸의 리듬을 따라 흐르고, 억압되어온 욕망과 무의식을 자유롭게 드러낸다. ‘몸으로 글을 쓴다’는 그녀의 표현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여성이 자신만의 언어를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엘렌식수(박혜영), 《메두가의 웃음/출구》, 동문선, 2004, 9쪽~12쪽.

7) “小二的手雖粗，放在她胸上，像有電一樣，她在發癢”，丁玲，〈阿毛姑娘〉，《丁玲全集3》，河北人民出版社，2001，127頁。

그녀는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고는 느리게 어루만졌고, 점차 나른하게 피로가 물러움을 느꼈다.<sup>9)</sup>

《阿毛姑娘》와 《慶雲里中的一間小房里》에서 보이는 위와 같은 성적 표현들은 당시에는 금기시되다시피 했던 여성의 성적 자아와 욕망을 작품 속에 명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기존의 가부장적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다.

그녀는 시집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도 고모도, 중매인도 모두 이 결혼은 당연한 순리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그녀는 그저 단호하게 몸만 옆으로 돌린 채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리며 흐느낄 뿐이었다...<sup>10)</sup>

阿毛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집가는 장면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없다시피 한 당시 사회를 보여주며, 이에 소극적인 저항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후 ‘爲什麼他不給三姐兩塊多錢呢?(왜 셋째 언니에게 기껏해야 2 위안 좀 넘는 그 돈도 안 주는 거야?)’<sup>11)</sup>와 같은 질문을 통해 비판적 의식이 싹트는 阿毛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丁玲의 작품에 보이는 이러한 점진적인 자각 과정은 소극적인 저항에서 적극적인 저항으로 여성 의식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여전히 가부장적인 중국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다. 이렇듯 丁玲은 두 작품에서 여성의 신체를 매개로 억압, 해방 그리고 고통과 쾌락 등의 복합적

8) “有時想得太完全了，太幸福了，忍不住便抱著小二的臉亂吻，或者還吻在他身上，覺得那身體異常熱，自己也就發起癢來”，《阿毛姑娘》，같은 책, 135頁.

9) “她把手放在自己胸上摸著，於是越覺得疲倦了”，《慶雲里中的一間小房里》，같은 책, 193頁.

10) “她實在不能了解這嫁人的意義；既是父親、三姑、媒人...都說這嫁是該的，想來總沒有錯……她只堅決的把身子扭在一邊無聲的飲泣著”，《阿毛姑娘》，같은 책, 117頁.

11) “爲什麼他不給三姐兩塊多錢呢”，《阿毛姑娘》，같은 책, 126頁.

인 경험들을 표현함으로써 여성의 육체적 주체성을 문학적으로 구현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녀의 초기 작품이 담고 있는 여성의 내면 세계, 욕망, 그리고 저항의 목소리는 번역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신경망 기반 AI 번역이 여성 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이해하는 것은 여성주의 문학 번역의 현대적인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선 연구들을 살펴보면 AI 각 모델들은 방대한 언어적 데이터로 학습되고 있지만, 여성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는 미묘한 언어적 뉘앙스들을 세밀히 포착하는 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AI 번역기들은 각기 다른 알고리즘 아키텍처와 윤리적 설계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먼저 Chat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대규모 사전학습 언어모델로, RLHF(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를 통해 인간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문맥 이해와 정서 조율 능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시스템은 감정적 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중립적이고 완화된 표현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Claude는 ‘Constitutional AI’ 설계 원리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대화 안전성과 비폭력성, 윤리적 조율을 중심으로 번역 응답을 생성한다. 이로 인해 감정 표현이나 저항적 서사에 대해 조심스러운 번역 선택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 DeepL은 독자적 Transformer 기반 번역 엔진을 바탕으로 고정밀의 구문 분석과 문장 조립 기능에 강점을 지니며, 특히 유럽어권 중심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및 중국어 번역에서는 감정의 미세한 뉘앙스 처리에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번역기 간 기술적 차이는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서, 각 번역기의 문화 수용성, 감정 민감도, 주체성 반영 능력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배경과 알고리즘 차이까지 고려하여, 번역 결과물에서 관찰되는 특정 경향을 해석하였다.

## 2. 번역 평가의 구체적 방법론

본 연구는 丁玲의 초기 여성주의 소설에 나타나는 언어적, 감정적, 문화적 특수성이 신경망 기반 AI 번역기를 통해 어떻게 재현되거나 왜곡되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丁玲의 대표 단편인 《阿毛姑娘》와 《慶雲里中的一間小房里》에서 여성 인물의 감정, 신체 욕망, 침묵, 사회적 억압이 응축되어 있는 핵심 문장 6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선별된 각 문장은 작품 내 여성의 내면성과 젠더 권력 구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AI 번역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분석 틀로 활용될 것이다

선정된 문장들은 그 의미의 층위에 따라 네 범주로 구분하였다.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 문장은 여성 인물의 심리적 뉘앙스와 정서적 반응이 언어화된 장면을 포함하고, 신체 욕망의 묘사는 여성 주체의 성적 감각과 자각이 보여지는 장면으로 AI 번역기의 윤리적 조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다. 침묵과 저항의 장면은 비언어적 몸짓과 침묵이 일종의 저항의 언어로 승화되는 장면이며, 사회적 맥락의 비판은 여성의 계급적 위치와 구조적 억압을 드러내는 서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문장들에 대한 AI 번역 결과를 정량 및 정성 평가로 분석하였다. 정량 평가는 LLM 기반의 자동 평가 메트릭 중 하나인 COMET(Comprehensive Evaluation of Machine Translation)을 활용하였다. COMET은 사전 학습된 신경망 모델을 바탕으로 번역문이 원문 및 참조문과 의미적으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분석하며, 결과값은 -1에서 +1 사이의 수치로 나오며 점수가 높을수록 번역 품질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장별로 세 번역기(GPT, Claude, DeepL)의 COMET 점수를 산출하여 기계 번역의 상대적 성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丁玲 문학이 내포하는 감정적, 상징적인 뉘앙스들은 단순히 의미 일치나 번역의 정확성만으로는 충분히 평가될 수 없다. 특히 여성의 욕망, 침묵, 저항과 같은 요소는 문화적 감수성과 뉘앙스 해석을 동반해야

하며, LLM 기반 평가 지표가 발견하지 못하는 정성적인 정보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량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수행한 정성 평가를 병행하였다.

정성 평가는 감정과 비유가 얼마나 정확하게 재현되었는지, 문맥과 문화적 맥락이 얼마나 잘 수용되었는지, 여성 주체성 표현이 유지되었는지, 문장이 유창하고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기계적 오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 항목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평가자는 각 번역기의 다중적 양상을 중심으로 비교·서술하였다. 또한 정성 평가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석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표 1〉 정성 평가 5점 척도 기준

점 수	평가 수준
5점	아주 잘함
4점	잘함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못함

덧붙여, 분석에 활용된 문장이 6개로 제한된 것은 AI 번역의 전반적인 단순 번역 가능성을 검토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육망·침묵 등의 중첩된 의미와 미묘한 뉘앙스가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정밀하게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의미적인 밀도가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AI 번역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후속 연구들이 향후 번역기 성능 향상 여부를 비교·추적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셋(Dataset)과 분석 프레임 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살펴 보았다.

기계 번역이 인간 번역자가 수행하는 의미 구성, 상징 해석, 감정의 조율 등의 작업을 어떻게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인간과 기계의 협업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데이터셋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Ⅲ. 여성주의 표현의 번역적 도전

#### 1. 신체성과 욕망

여성의 신체성과 성적 욕망의 솔직한 표현들은 丁玲 초기문학에 있어 가장 파격적인 측면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당시 금기시되던 여성의 몸을 통해 억압되어 있던 욕망과 감각들을 텍스트화함으로써 가부장적인 중국 사회에 도전장을 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볼 때 《慶雲里中的一間小房里》에서 보이는 阿毛의 성적 표현과 욕망에 관한 묘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할 수 있다.

샤오얼의 손은 비록 거칠었지만 그 거친 손이 그녀의 가슴에 닿기라도 하면 그녀는 마치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이 달아올랐다. 가슴에 닿은 그 손을 치우고 싶었지만 되려 몸은 샤오얼에게 바짝 밀착되었다.<sup>12)</sup>

위 문장은 샤오얼의 손이 阿毛의 가슴에 닿을 때 발생하는 신체적인 자극, 감정의 변화, 그리고 거부와 동시에 더욱 밀착되고자 하는 욕망의 모순적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丁玲 문학이 내포하고 있는 성적 긴장을 극대화하는 장면으로, 욕망의 감각과 주체의 심리를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 문장을 대상으로 ChatGPT(GPT-4), Claude, DeepL 등 대표적 신경망 기반 AI 번역기 세 종의 번역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은 감정·비유 재현력, 문맥·문화 수용력, 여성 주체성 표현, 문체 유창

12) “小二的手雖粗，放在她胸上，像有電一樣，她在發癢，想把這手拿開，而身子反更貼緊小二了。”，같은 책, 127頁.

성, 기계적 오류 여부의 다섯 가지 항목에 따라 정량 평가하였으며, 동시에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평가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AI 번역기의 丁玲 문장 번역 비교 및 평가 결과-1

유 형	번역 결과				
ChatGPT	소이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녀의 가슴 위에 닿자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그녀는 열이 나는 것처럼 몸이 달아올라 그 손을 치우고 싶었지만, 오히려 몸은 더 소이에게 바짝 달라붙었다.				
	감정비유재현력	4	COMET	0.732(2)	
	문맥·문화 수용력	4			
	여성 주체성 표현	3			
	문체 유창성	4			
	기계적 오류	5			
	합 계	20(25)			
Claude	소이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녀의 가슴에 올려지자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열이 나는 듯했고, 그 손을 치워버리고 싶었지만, 몸은 오히려 소이에게 더욱 바짝 붙어갔다.				
	감정비유재현력	3	COMET	0.678(3)	
	문맥·문화 수용력	3			
	여성 주체성 표현	2			
	문체 유창성	5			
	기계적 오류	5			
	합 계	18(25)			
DeepL	소이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녀의 가슴에 닿자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그녀는 열이 있었고 그 손을 치우려 했지만, 오히려 몸이 소이에게 더 밀착되었다.				
	감정비유재현력	5	COMET	0.759(1)	
	문맥·문화 수용력	4			
	여성 주체성 표현	4			
	문체 유창성	4			
	기계적 오류	4			
	합 계	21(25)			

분석 결과, COMET 기반 정량 평가에서는 DeepL이 가장 높은 점수 (0.759)를 기록하여 의미적인 일치도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GPT-4가 0.732, Claude가 0.678로 뒤를 이었다.

ChatGPT는 절제된 표현 속에서도 감정 흐름과 문체의 유창함을 안정감 있게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감각적 묘사의 생생함보다는 맥락과 문맥의 자연스러움을 중시한 접근이었으며, 전체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텍스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laude는 성적 표현과 감정 묘사에서 중립성과 윤리적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여성 주체의 욕망이나 갈등의 표현이 상당 부분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DeepL은 감각적인 표현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신체 반응의 구체성을 서술하는 면에서는 우위를 보였으나, 문체의 자연스러움이나 심리적인 내면 묘사에서는 단절되고 심지어 어색한 느낌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끔은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느껴지고 너무 행복해서 참지 못하고 샤오얼의 얼굴을 부여잡고 키스를 퍼부을 때가 있다. 때로는 그의 몸에까지 키스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샤오얼의 몸은 이상하리만큼 뜨겁게 느껴졌고, 스스로도 몸이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sup>13)</sup>

《阿毛姑娘》의 이 구절은 여성이 성적인 욕망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亂吻(마구 키스하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여성의 욕망이 기존의 규범 질서를 벗어나는 무질서한 상태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는 가부장적 제약에 대한 반항임과 동시에 욕망의 주체로서의 여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有時想得太完全了，太幸福了，忍不住便抱著小二的臉亂吻，或者還吻在他身上，覺得那身體異常熱，自己也就發起燒來”，《阿毛姑娘》，같은 책，p.135.

〈표 3〉 AI 번역기의 丁玲 문장 번역 비교 및 평가 결과-2

유 형	번역 결과			
ChatGPT	가끔은 너무 완벽하게 생각되고, 너무 행복해서, 참지 못하고 샤오얼의 얼굴을 껴안고 마구 입을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몸에도 입을 맞추며, 그 몸이 유난히 뜨겁게 느껴져서 자신도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감정비유재현력	4	COMET	0.721(1)
	문맥·문화 수용력	4		
	여성 주체성 표현	3		
	문체 유창성	4		
	기계적 오류	5		
합 계	20(25)			
Claude	때로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참을 수 없이 소이의 얼굴을 껴안고 마구 입맞춤을 하거나, 아니면 그의 몸에도 입맞춤을 하며, 그 몸이 이상하게 뜨겁다고 느끼면, 자신도 열이 나기 시작했다.			
	감정비유재현력	3	COMET	0.684(3)
	문맥·문화 수용력	3		
	여성 주체성 표현	2		
	문체 유창성	5		
	기계적 오류	5		
합 계	18(25)			
DeepL	때로는 너무 완벽하게,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다 보니, 참을 수 없이 작은 아이의 얼굴을 끌어안고 마구 키스하거나, 그의 몸에 키스를 퍼붓게 된다. 그 몸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열이 나기 시작한다..			
	감정비유재현력	3	COMET	0.691(2)
	문맥·문화 수용력	2		
	여성 주체성 표현	2		
	문체 유창성	4		
	기계적 오류	2		
합 계	13(25)			

ChatGPT는 원문에서 표현된 감정의 흐름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번역했

다. ‘참지 못하고 샤오얼의 얼굴을 껴안고 마구 입을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몸에도 입을 맞추며...’라는 서술은 ‘亂吻’과 ‘吻在他身上’라는 원문 표현을 자연스럽게 번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몸이 유난히 뜨겁게 느껴져서 자신도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부분 역시 신체 감각과 정서 반응을 비교적 안정된 문장으로 번역해냈다. 하지만 일부 문장 구조가 번역체로 느껴지는 점은 자연스러운 서사 흐름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Claude의 결과물은 문법적 정확성과 간결함이 보이지만, 감정의 폭발적 흐름을 완만하게 조절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입맞춤을 하거나, 아니면 그의 몸에도 입맞춤을 하며’라는 이중 구조는 ‘亂吻’의 다층적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그 몸이 이상하게 뜨겁다고 느끼면’이라는 표현은 감각적인 느낌보다는 오히려 논리적 관찰에 가깝게 표현되어 감정의 진폭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DeepL은 가장 직설적인 표현을 활용하며 감각을 표현하는 번역에 있어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다. ‘그의 몸에 키스를 퍼붓게 된다’는 번역은 원문의 ‘亂吻’이 갖는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직접적으로 번역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물명을 ‘작은 아이’로 오역한 문제는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나며, 이는 문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작은 아이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상황 전체의 해석을 왜곡할 수 있으며, 문학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기계 번역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OMET 점수의 정량 평가는 ChatGPT 0.721, Claude 0.684, DeepL 0.691이며, DeepL은 감각의 재현성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인명을 오역한 치명적 결함으로 인해 실질적 점수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ChatGPT는 문맥적 일관성과 감정 흐름의 표현력에서 가장 안정된 성과를 보였다.

위 분석을 통하여 AI 번역기가 성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여성 서사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통제하거나, 걱정의 표현들을 논리적으로 평탄화시키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亂吻’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욕망의 언어가 각 번역기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기술적 역량뿐 아

나라 알고리즘이 반영하는 사회적 기준과 문화적 수용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지표로도 바라볼 수 있다. 이는 단지 정확한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서사가 기계 번역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교차되고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본 연구의 핵심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慶雲里中的一間小房里》에 등장하는 매춘부 阿英의 꿈 장면을 살펴보면, 욕망과 향수가 교차하는 복합적 감정의 번역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꿈속에서 그녀는 이미 집으로 돌아가 있었다. 천라오산이 평소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힘이 넘치게 그녀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다른 남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남자인 동시에 자신을 가장 기분 좋게 해 줄 수 있다고 느꼈다. 이것은 아영이 예전에 집에 있었을 때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었다.<sup>14)</sup>

〈표 4〉 AI 번역기의 丁玲 문장 번역 비교 및 평가 결과-3

유 형	번역 결과			
ChatGPT	꿈속에서 그녀는 이미 집으로 돌아가 있었고, 천라오산이 그녀를 껴안고 있었으며, 그는 유난히 힘이 넘쳤다. 그녀는 그가 모든 남자들보다 낫고, 자신을 가장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느꼈다. 이는 그녀가 예전에 집에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감정비유재현력	4	COMET	0.61(2)
	문맥·문화 수용력	4		
	여성 주체성 표현	3		
	문체 유창성	4		
	기계적 오류	5		
합 계	20(25)			

14) “在夢中，她已回到家了，陳老三抱著她，陳老三變得異常有勁，她覺得他比一切男人都好，都能使她舒服，這是她從前在家時所感不出的。”，〈慶雲里中的一間小房里〉，같은 책，192頁。

유 형	번역 결과			
Claude	꿈속에서 그녀는 이미 집에 돌아와 있었고, 천라오산이 그녀를 껴안고 있었다. 천라오산은 유난히 기운이 넘쳤고, 그녀는 그가 그 어떤 남자보다도 훌륭하며, 모두 자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느꼈다. 이것은 예전 집에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감정비유재현력	5	COMET	0.59(3)
	문맥·문화 수용력	3		
	여성 주체성 표현	4		
	문체 유창성	3		
	기계적 오류	5		
합 계	20(25)			
DeepL	꿈 속에서 그녀는 이미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진 노삼이 그녀를 안고 있었고, 진 노삼은 평소와 달리 매우 힘이 넘쳤다. 그녀는 그가 모든 남자보다도 더 좋다고 느꼈고, 그만큼 그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그녀가 예전에 집에서 살 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감정비유재현력	4	COMET	0.63(1)
	문맥·문화 수용력	3		
	여성 주체성 표현	4		
	문체 유창성	5		
	기계적 오류	3		
합 계	19(25)			

위 문장은 阿英이 꿈속에서 느낀 성적인 만족감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결합된 장면으로, 문학적·감정적 복합성이 높아 AI 번역기의 처리 역량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사례로 생각된다. 특히 ‘使她舒服(그녀를 편안하게/기분 좋게 해주다)’라는 구절은 단순한 몸의 편안함을 떠나 성적인 만족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함의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윤리적 조정, 뉘앙스 전달, 문체 조화 등에서 번역기의 판단이 극명하게 갈림을 볼 수 있었다.

ChatGPT는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상대적으로 완곡한 표현을 선택하며 윤리적 중립성을 보여주었지만, 그만큼 감정의 생생함이나 뉘앙스

의 섬세함은 희석됨을 볼 수 있다. COMET 점수는 0.61로 중상 수준이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번역체 문장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Claude는 보다 직접적인 표현인 ‘만족시켜 줄 수 있다’를 사용하며 원문이 가진 성적 함의를 가장 명확하게 전달했다. 그러나 전체 문장이 직역 구조로 구성되어 다소 부자연스럽고 기계 번역 특유의 거친 느낌이 있다. COMET 점수는 0.59로 ChatGPT보다 약간 낮으며, 자연스러움과 감성적 조율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DeepL은 ‘그만이 그녀를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표현을 통해 문체적 유창성과 감정의 흐름을 잘 살려냈으며, ‘그만이’라는 강조 표현을 통해 阿英의 감성적 몰입도를 부각시켰다. 하지만 ‘진노산(陳老三)’이라는 고유명사의 오역이 존재하여 기계적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인명의 오역에도 불구하고 COMET 점수는 0.63으로 가장 높았으며, 문체 완성도는 우수하나 핵심 명사 번역의 정확성은 아쉬운 지점으로 남는다. 이러한 결과는 번역기의 성능을 단순한 의미 전달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감수성, 정서 표현의 충실도, 문체 조화 등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丁玲의 여성주의 문학처럼 여러 감정과 맥락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학 작품에서는 정성적 평가와 LLM 기반 정량 지표의 병행 분석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선 분석들은 AI 번역기가 丁玲의 욕망 서사를 다룰 때, 단순한 기술적 성능만이 아니라 각 모델의 알고리즘 설계, 윤리적 검열 기준, 문화적 맥락 이해도 등에 따라 번역 결과의 감수성과 정치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 욕망에 관한 텍스트는 윤리적 조정과 감정의 평탄화라는 처리 방식에 따라 주체적인 해석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문학 번역에서 AI와 인간 번역자 간의 해석적 역할 구분과 협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억압과 해방

丁玲 문학의 또 다른 중요한 여성주의적 모습은, 말하지 않음, 혹은 조용한 저항을 통해 가부장제 속 여성의 억압과 해방을 드러낸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당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저항하고 자신만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지켜내는지 보여주고 있다.<sup>15)</sup> 《阿毛姑娘》의 결혼 첫날 밤 장면을 묘사한 문장은 이러한 침묵을 통한 저항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저 단호하게 몸만 옆으로 돌린 채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리며 흐느꼈다. 그 남자는 흐느끼는 그녀를 놓아주고는 몸을 돌려 곧 잠에 빠져 버렸다.<sup>16)</sup>

〈표 5〉 AI 번역기의 丁玲 문장 번역 비교 및 평가 결과-4

유 형	번역 결과			
ChatGPT	그녀는 단지 몸을 한쪽으로 단호히 틀어 누운 채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녀를 놓아주고 몸을 돌려 잠들어 버렸다.			
	감정비유재현력	4	COMET	0.60(1)
	문맥·문화 수용력	4		
	여성 주체성 표현	3		

15)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에서 식민지 여성이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말할 수 없는 구조적 위치에 처해 있다고 보았다. 이런 시각에서 丁玲의 여성 인물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난다. 그들은 언어로는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침묵이나 몸짓, 감각 같은 다른 방식으로 저항 의지와 주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스피박이 지적한 ‘말할 수 없음’이라는 제약을 정면으로 돌파하지는 못하더라도, 우회하거나 균열을 내리는 나름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태혜숙),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135~137쪽.

16) “她只堅決的把身子扭在一邊無聲的飲泣著。那男人也就放了她，翻身睡去了。”，丁玲，〈阿毛姑娘〉，같은 책，120頁.

유형	번역 결과			
ChatGPT	문체 유창성	5	COMET	0.60(1)
	기계적 오류	5		
	합계	21(25)		
Claude	그녀는 단호하게 몸을 한쪽으로 틀고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그 남자도 그녀를 놓아주고는 몸을 돌려 잠이 들었다.			
	감정비유재현력	3	COMET	0.55(2)
	문맥·문화 수용력	4		
	여성 주체성 표현	3		
	문체 유창성	4		
	기계적 오류	5		
합계	19(25)			
DeepL	그녀는 단호하게 몸을 한쪽으로 틀어 무음으로 울고 있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놓아주고 몸을 돌려 잠들었다.			
	감정비유재현력	2	COMET	0.52(3)
	문맥·문화 수용력	3		
	여성 주체성 표현	2		
	문체 유창성	3		
	기계적 오류	4		
합계	14(25)			

위 문장은 丁玲 소설에서 침묵의 정치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장면으로, 阿毛가 언어 없이 신체를 통해 감정과 저항을 표현하는 구절이다. ‘身子扭在一邊(몸을 한쪽으로 비틀다)’와 침묵 ‘無聲(소리 없이)’의 묘사는 명백한 신체적 거절이며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여성 주체의 내면을 드러내는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AI 번역기의 감정 재현력, 맥락 수용, 주체성 구현 능력이 고도로 요구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ChatGPT는 ‘단호히 몸을 한쪽으로 틀어 누운 채 소리 없이 흐느꼈다’라는 식으로 감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번역하였는데, 이는 감정의 맥락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틀어 누운 채’라는 구는 원문에 없는 정보를 과잉 해석한 것으로, 독자에게 감정의 강도를 강하게 전달할 위험이 있

다. 그러나 감정 표현력(4점), 문맥 반영도(4점), 문체 유창성(5점), 기계적 오류 없음(5점) 등에서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COMET 점수 역시 0.60으로 세 번역기 중 가장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인간 평가와 COMET 점수 모두 높은 편으로, 기계적 평가와 인간 독자의 수용성이 비교적 일치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Claude는 원문에 충실한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다’의 표현을 선택하며 감정 과잉 해석을 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문맥의 일관성과 문법적 안정성은 있으나, 감정의 섬세함이나 상징성 재현에서는 다소 평면적으로 느껴진다. 동시에 문장 간 리듬감이 끊기는 느낌이 들며, 정치적 함의 역시 약화되는 것도 살펴 볼 수 있다. 실제로 감정 표현력(3점), 유창성(4점), 주체성 표현(3점) 등에서 다소 보수적인 번역 경향을 보였으며, COMET 점수는 0.55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인간 평가와 COMET 점수가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며, LLM 기반 평가가 번역의 객관적 품질 경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DeepL은 ‘무음으로 울고 있었다’는 번역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문맥이라 보기 어렵고 문학 번역의 맥락에서 부적절한 용어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몸을 돌려 잠들었다’는 구절 역시 원문의 반응을 평면적으로 처리하여, 정서적 밀도와 정치적 긴장감이 희석됨을 볼 수 있다. 정성 평가에서도 감정 재현력(2점), 문맥 수용성(3점), 유창성(3점) 등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COMET 점수 또한 0.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간 평가와 LLM의 평가가 모두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 기계 기반 자동 평가가 번역 품질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阿毛姑娘》에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의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인 질서와 여성의 경제적 종속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질문이 등장한다. ‘왜 셋째 언니에게 기껏해야 2위안 좀 넘는 그 돈도 안 주는 거야?’<sup>17)</sup>라는 대사는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17) “爲什麼他不給三姐兩塊多錢呢”, 《阿毛姑娘》, 같은 책, 126頁.

〈표 6〉 AI 번역기의 丁玲 문장 번역 비교 및 평가 결과-5

유 형	번역 결과			
ChatGPT	그는 어째서 삼자에게 고작 두 위안 남짓한 돈조차 건네지 않으려는 걸까?			
	감정비유재현력	4	COMET	0.66(1)
	문맥·문화 수용력	4		
	여성 주체성 표현	4		
	문체 유창성	3		
	기계적 오류	5		
	합 계	20(25)		
Claude	왜 그는 삼 자매의 셋째에게 2위안 남짓도 안 주는 거야?			
	감정비유재현력	3	COMET	0.52(2)
	문맥·문화 수용력	3		
	여성 주체성 표현	2		
	문체 유창성	4		
	기계적 오류	5		
	합 계	17(25)		
DeepL	왜 그는 세 번째 언니에게 두 세 푼을 더 주지 않았을까요?			
	감정비유재현력	2	COMET	0.43(3)
	문맥·문화 수용력	2		
	여성 주체성 표현	2		
	문체 유창성	3		
	기계적 오류	4		
	합 계	13(25)		

‘왜 셋째 언니에게 기껏해야 2위안 좀 넘는 그 돈도 안 주는 거야?’는 짧은 질문은 단순한 금전적 불만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 종속성과 가부장적 구조에 대한 암묵적인 저항과 비판이 드러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장을 번역한 세 AI 번역기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ChatGPT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구어체 표현을 통해 감정의 뉘앙스를 잘 살렸고, COMET 점수에서도 0.66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을 볼 수 있다. 반면 Claude는 문법적 안정성은 확보했지만 인물 간 관계나 정서적 맥락의 전

달에는 다소 미흡했으며, COMET 점수는 0.52로 중간정도 값을 보였다. DeepL의 번역은 ‘삼자(三姐)’를 ‘세 번째 언니’로 옮기고, ‘2위안’을 ‘두세 푼’으로 번역하면서 중국 사회 내 가족 구조, 경제 질서, 여성의 위치를 둘러싼 상징적 의미를 축소하거나 맥락을 벗어난 번역을 하였다. COMET 점수 역시 0.43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 대상 언어가 전제하는 가부장적 위계와 경제적 억압의 현실을 놓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문화적 코드와 권력 구조에 대한 인식 없이 진행된 번역이 문학적 함의를 어떻게 손상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阿英이 고객을 기다리며 던진 아래의 한 마디 문장은 언뜻 보면 순종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그 몽롱한 태도와 어조 속에는 감정적 거리두기와 내면의 저항이 담긴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아잉은 몽롱한 모습으로 떠나려는 이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일찍 오세요!’<sup>18)</sup>

〈표 7〉 AI 번역기의 丁玲 문장 번역 비교 및 평가 결과-6

유 형	번역 결과			
ChatGPT	아잉은 흐릿하게 가려는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 밤 일찍 와!”			
	감정비유재현력	4	COMET	0.745(1)
	문맥·문화 수용력	4		
	여성 주체성 표현	3		
	문체 유창성	5		
	기계적 오류	5		
	합 계	21(25)		

18) “阿英迷迷糊糊的在向要走的人說。‘今晚早些來呵!’”, 〈慶雲里中的一間小房里〉, 같은 책, 192頁.

유형	번역 결과			
Claude	아영이 흐릿한 정신으로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 밤 일찍 와요.”			
	감정비유재현력	3	COMET	0.702(2)
	문맥·문화 수용력	4		
	여성 주체성 표현	3		
	문체 유창성	4		
	기계적 오류 여부	5		
합 계	19(25)			
DeepL	아영은 흐리멍당한 표정으로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일찍 오세요.”			
	감정비유재현력	2	COMET	0.668(3)
	문맥·문화 수용력	3		
	여성 주체성 표현	2		
	문체 유창성	3		
	기계적 오류 여부	4		
합 계	14(25)			

《慶雲里中の一間小房里》에서 阿英이 “오늘 밤 일찍 와!”라고 말하는 장면은 감정 표현이 극도로 억제된 탈감정적 언어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위 구절은 화자의 지친 내면과 감정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관계의 파국 앞에서도 감정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여성 인물의 체념적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을 번역하는 데에는 직역 이상의 감정 결과, 정서적 거리감, 반복적 리듬 등을 함께 포착할 수 있는 미묘한 언어 감각이 요구된다.

ChatGPT는 ‘흐릿하게’라는 표현을 통해 원문의 감정 억제적 분위기를 충실히 나타내려는 시도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장 마지막 부분의 “와!”는 해석적 개입의 여지가 느껴진다. 감정 표현력(4점), 문맥 수용력(4점), 유창성(5점) 등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COMET 점수 역시 0.74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Claude는 ‘흐릿한 정신으로’라는 번역을 선택하여 주인공의 상태를 좀 더 구체화하려 했지만, 그 결과 원문이지닌 애매하고 무표정한 감정이 다소 명시적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 표현인 “와요.”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일상적인 느낌을 주고 있으며, 문장의 완결성을 높였지만, 주인공이 내포하고 있는 무기력한 내면의 감정은 다소 희석되었다. 감정 표현력(3점), 주제성 구현(3점), 문체 유창성(4점) 등에서 중간 수준을 기록했으며, COMET 점수는 0.702로 중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량적 평가와 인간의 세부 평가 간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DeepL의 번역은 ‘흐릿한 표정’이라는 표현으로 주체의 상태를 외적 이미지로 대체함으로써 감정의 내면성이 훼손되었고, 문장의 정서적 긴장감 역시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오늘 저녁 일찍 오세요.”라는 마지막 표현은 정중하고 관용적인 어투로, 원문이 가지고 있는 가벼운 당부의 어조를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감정 표현력(2점), 문맥 수용력(3점), 유창성(3점) 등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COMET 점수 역시 0.66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정성적 평가에서 지적된 문체와 COMET 점수 간의 일치도가 높은 사례로 구조·어조·정서의 전반적 왜곡이 LLM 평가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감정 표현이 제거되거나 억제된 문장을 번역할 때, 기계 번역기는 감정이 ‘없음’이라는 상태를 단순한 무표정으로 처리하거나 오히려 과잉 해석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여성 주인공의 억제된 감정적 표현은 문맥 내 구조적 체념, 피로, 단절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를 기계가 감지하고 반영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AI 번역기가 ‘말하지 않음의 감정’이나 ‘침묵의 정서’를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도 연결되며, 젠더적 침묵의 표현이 기계적으로 처리될 때 어떤 식으로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석 지점이다.

#### IV. 나오는 말

본고는 丁玲의 초기 여성주의 문학에 나타난 욕망, 침묵, 저항의 언어가 신경망 기반 AI 번역기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계 번역이 인간의 감정과 정치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특히 《慶雲里中的一間小房里》과 《阿毛姑娘》를 중심으로 여성의 신체, 성과 욕망 표현, 말로 표현되지 않는 침묵과 몸짓의 언어가 번역되는 모습을 ChatGPT, Claude, DeepL 세 번역기의 결과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세 AI 번역기는 여성주의 문학의 핵심 주제인 감정 표현, 비유적 감각어, 사회적 맥락의 재현에 있어 서로 다른 번역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ChatGPT는 문장 구성의 유연성과 문맥적 일관성에서 강점을 보였으나, 성적 욕망이나 정서 표현과 같은 민감한 표현에서는 RLHF기반 필터링에 의해 완화되거나 중립적인 번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Claude는 감정적 뉘앙스나 주체성을 섬세하게 포착했지만, 윤리 중심 설계로 인해 침묵이나 욕망의 급진적 표현을 중립화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DeepL은 직관적인 번역으로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실제 의미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직역투의 번역으로 문화적 맥락과 은유적 표현의 뉘앙스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냄을 볼 수 있다.

또한, 번역 결과에 대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LLM 기반의 번역 평가 시스템(COMET)은 번역문이 원문과 어휘적·문장 구조상 유사도를 보이고 문맥 오류가 없을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인간 평가자는 문체의 자연스러움, 번역 투, 감정의 강도, 문화적 함의 등의 요소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여성주의 문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몸의 감각, 억압에 대한 저항, 욕망의 발화와 같은 표현의 뉘앙스 왜곡을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었다. 인간 평가자가 어색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표현이 LLM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는 현재 LLM

기반 평가 시스템이 문학 번역에서 요구되는 복합적인 감정 구조나 정치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망 번역기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하는 체계 또한, 문학 번역 특히 여성 서사의 번역에 있어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번역 평가 체계는 단순한 지표를 넘어서 감정, 정체성, 상징성 등의 요소를 통합할 수 있는 다층적인 기준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丁玲 문학에 내재된 침묵의 저항, 욕망의 감각화, 경제적 종속에 대한 비판 등의 서사는 번역기마다 다르게 반응함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문학 번역에서 기계의 한계와 인간 번역자의 해석적 개입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침묵을 통한 저항, 흐릿한 말투로 표현되는 거리두기, 간접적인 비판과 같은 은유적인 표현들은 아직까지 기계가 그 이면에 담긴 정서와 권력 구도를 포착하기에 어려운 영역이라 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곧 문학 번역이 단순한 언어의 변환을 넘어선 문화적인 재현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앞으로의 번역에서 AI와 인간 번역가의 협업은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 생각된다. AI는 초벌 번역, 문장의 구조화, 어휘 처리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인간은 여성주의적 맥락, 문화적 함의, 정서적 뉘앙스 조정에 기여함으로써 번역의 감수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AI 번역기의 한계를 보완하고 번역의 정교함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적 확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문학 텍스트에서 빈도 높은 감정 표현, 시대별 언어 습관, 상징적 어휘 등을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이를 AI 학습 데이터에 반영하게 되면 지금보다 문맥에 민감한 번역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시대에 등장하는 특이 단어, 어투, 상표명, 사회 제도 등 문화적 요소들을 아카이빙하고 번역기에 학습시키는 방식 역시 앞으로의 AI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 역시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분석 대상이 된 문학 작품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丁玲 문학 전체나 중국 여성주의 문학 전반에 대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번역 결과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연구자의 해석과 감수성에 기반하고 있어 일정 부분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동시에 AI 모델 내부의 작동 원리와 데이터 학습 방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번역 결과의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AI 번역기와 여성주의 문학의 만남이라는 상대적으로 미개척된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과 감수성, 알고리즘과 주체성의 경계를 비판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생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는 AI 번역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기술적·비기술적 방향의 병행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감정 표현, 은유, 문화적 어휘를 포함한 문학적 요소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AI 학습에 반영함으로써 맥락에 민감한 번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LLM 기반 평가 메트릭(COMET 등)의 성능을 여성주의 문학 텍스트에 적합하도록 보완하는 기술 개발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비기술적 측면에서는 AI 번역이 하나의 해석 주체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문학 연구자·번역가·디지털 인문학자의 협업을 통해 기계 번역의 윤리적, 정치적 함의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특히 여성 서사의 감정적 층위와 침묵의 언어, 번역 과정에서의 해석 권력 문제는 단순한 번역 정확도 문제를 넘어, 기계 번역이 어떤 서사를 가능하게 하거나 배제하는가에 대한 성찰적인 접근을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AI와 인간 번역자의 협업은 앞으로 문학 번역의 감수성과 해석성을 보완할 수 있는 주요한 방향이 될 것이며, 다양한 장르와 시대의 문학 텍스트에 대한 종합적 탐색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권도경, 문수정, 김정수, 허윤정, <2018년 인공지능망 기계번역의 중한 번역 현황 - 구글 번역과 네이버 파파고를 중심으로> 98권, 《중국문학》, 2019.
- 김미정, <丁玲문학의 진폭(1)>, 《중국어문학》 51권, 2008.
- 김애령, <다른 목소리 듣기: 말하는 주체와 들리지 않는 이방성>, 《한국여성철학》, 2012.
- 남철진, <中韓(韓中) 번역을 통해 본 구글번역(GNMT)의 문제>, 《중국과 중국학》 34권, 2018.
- 박정희, 강병규, <챗GPT에 기반한 중국문학작품 번역 방법론 탐구>, 《한국중국어문학회》 119권, 2024.
- 서미령, <한·중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 고찰 — 번역가와 AI 번역기의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125권, 《중국어문학논집》, 2020.
- 윤학로, <메두사의 웃음과 여성의 글쓰기>, 《프랑스학회》 26권, 2003.
- 최은정, <丁玲의 阿毛姑娘에 대한 소고>, 《중국어문학》 56호, 2010.
-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지음,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 도나 J. 해러웨이 지음, 황희선 옮김, 《해러웨이 선언문》, 2019.
- 엘렌 식수 지음, 박혜영 옮김, 《메두사의 웃음》, 동문선, 2004.
- 白玉, <AI时代机器翻译技术对文学翻译的协助介入作用>, 《兰州文理学院外国语学院》 第37卷, 2021.
- 丁玲, 《丁玲全集(全12册)》, 河北人民出版社, 2001.
- 樊迎春, <褶皱之外——AI时代的人与文学>, 《南方文坛》, 2019.
- 王宁, <新文科视域下的翻译研究>, 《上海外国语大学学报》第44卷, 2021.
- 周良沛, 《丁玲传》, 北京十月文艺出版社, 1993.

## &lt;Abstract&gt;

This study explores how 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 systems handle the politically and emotionally charged language of feminist literature, focusing on Ding Ling's early works *Amao Girl*, and *A Small Room in Qingyun Lan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ranslations produced by ChatGPT, Claude, and DeepL, the paper examines how key elements such as female desire, bodily expression, silence, and resistance are rendered by AI. Using both quantitative metrics (COMET scores) and qualitative criteria (emotional fidelity, metaphor translation, cultural sensitivity, and subjectivity), the study highlights critical discrepancies among the models. While ChatGPT maintains contextual coherence and stylistic fluency, it often neutralizes expressions of desire or resistance. Claude shows ethical caution, softening subversive narratives, while DeepL emphasizes sensory vividness at the cost of misinterpreting cultural nuance. The findings reveal that AI translation systems—despite their linguistic sophistication—struggle to reproduce the emotional depth, symbolic layers, and political resonance of feminist texts. The study ultimately argues for the continued necessity of human translators, especially when engaging with emotionally charged and ideologically complex literature. It further suggests a hybrid model where AI assists in structural tasks, while human sensitivity ensures interpretive accuracy and cultural fidelity.

Key Words : 신경망 기계번역(NMT), 덩링(Ding Ling), 페미니즘 문학  
(Feminist Literature),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